



전통나무
팽나무

당산이 서낭당으로 변한 할배나무의 팽나무

	
지정번호	부산-2-12-6-1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730
지정년도	1982 35° 06' 38.03" N
관리기관	부산 128° 52' 11.03" E
수령	303년
수고	22m
흉고둘레	5.5m

금슬이 좋은 부부나무라 부르는 보호수(부산-2-12-6-1) 팽나무는 햇볕이 잘 드는 산양마을의 산양사 앞에 자라고 있다. 산양사 입구에는 3그루의 팽나무 고목이 자라는데, 그중 할배나무라 부르는 나무가 보호수이다. 팽나무의 나이는 30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22m, 가슴높이둘레는 55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크고 굵게 갈라진 후 다시 큰 가지 줄기를 내어 퍼져 있다.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당산나무(당산목)와 관련이 있다. 봉화산 아래의 산양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3그루의 커다란 팽나무 중에 2그루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팽나무를 각각 할배나무, 할매나무라 부르고 있다. 하늘을 향해 넓게 가지를 뻗은 채 자라는 나무가 할배나무이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라는 나무가 바로 할매나무이다. 할배나무는 남근(男根)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할매나무는 여근(女根)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2그루의

나무를 하늘이 맺어 준 부부라고 말한다.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다른 그루가 있다. 할배나무 아래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 놓은 '서낭당'이 있다. 40~50년 전까지는 이 마을에 서낭당이 아닌 '당산'이 있었는데, 당산을 없앤 이후 기이하게도 마을의 젊은이 여럿이 죽는 등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서낭당을 만들었다. 그 이후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동티(나무나 돌 등을 잘못 건드려 땅의 신을 화나게 해 재앙을 받는 일)가 염려되어 팽나무의 죽은 가지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에도 스님께 염불을 부탁드려 두 나무가 노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또한 이 나무로 불을 때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팽나무 아래에서 지내고 있다. 팽나무는 산양마을의 수호목 또는 당산나무(당산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원성취를 비는 나무이다. 때로는 넓고 탁 트인 휴식처를 제공한다.